

# 광주시의회, 인사교류·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촉구

### 정무창 의장 "집행부 노력해달라" "산하기관 33곳 중 8곳만 청문회" 적극행정·원할한 소통도 촉구

광주시의회가 민선 8기 광주시의 첫 인사와 관련, 의회와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광주시의회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권한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반쪽자리 인사권에 그치고, 조직권과 예산권도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런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적극행정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단행된 광주시의 승·진보 인사와 관련해 시의회와의 인사교류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8급 하위직 결원 2명을 충원해줄 것과 전문위원실에 5급 팀장 배치, 특별전문위원실의 인력 보강, 4·5급 직원들의 진출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으나 최근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강기정 시장도 의회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역사시대로 양 기관이 배려하는 가운데 협력이 원

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집행부도 정원을 못 늘린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며 "결원 문제는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어 오는 9월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박희율(남구3)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이 33곳에 이르고, 보수 운영 실태 점검 대상기관은 22곳에 이르지만, 인사청문 대상은 8곳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늘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법제화를 이뤄내야만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도 해당 공공기관에 인사권이 있다 보니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광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공공기관 중 환경공간 이사장, 관광재단 대표, 교통문화연구소장 등은 현재 공석 상태고, 남도장학회와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기관장은 올 하반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 내년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광주전남연구원, 도시철도공사, 그린카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등 8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 민주 최고위원 경선 요동...송갑석 당선권 진입 '파란불'

### 윤영찬 사퇴...송갑석 지지 선언 수도권 경선서 역전 가능성 커져 대표경선 이재명 80% 득표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의 당권 경쟁이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은 수도권 순회 경선과 대의원 투표 등을 앞두고 오히려 불을 뿜고 있는 분위기다. 친문(친 문재인)계이자 친이(친 이낙연)계인 윤영찬 후보가 22일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전격 사퇴, 최고위원 경쟁 구도가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 후보의 당선권 진입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체제 구축에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은 수도권 순회 경선과 대의원 투표 등을 앞두고 오히려 불을 뿜고 있는 분위기다. 친문(친 문재인)계이자 친이(친 이낙연)계인 윤영찬 후보가 22일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전격 사퇴, 최고위원 경쟁 구도가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 후보의 당선권 진입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체제 구축에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둬 따라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사실상 고착화됐다. 현재 추세라면 이 후보의 압승은 물론 8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는가 오히려 관심사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진영에서는 남은 경선 기간에 통합과 혁신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한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

정 논란과 관련, 이 후보가 "더는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진영에서는 마지막까지 바둑 지지세를 결집해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 확실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당부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며 정치적 중립감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도 '이재명 견제론'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 이재명 친정 체제 구축에 따른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결정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한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은 윤영찬 후보의 사퇴로 막판 경쟁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것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윤 의원은 후보직 사퇴와 함께 호남 단일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뜻있게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 송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의 국민에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지지로 현재 득표율 6위인 송 후보의 당선권 진입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경선에서 당선권 주자들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인다면 대의원 투표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송 후보 진영 입장이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표에 비해 30배 가량 등가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득표율 5위인 박찬대 후보에 2천여 표가량 뒤지고 있지만 단순 수치상으로 대의원 투표에서 70표 정도만 더 얻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3·4위 후보와의 표차도 1만여 표에 불과, 대의원 투표에서 선전한다면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 측에서는 친명 체제 구축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견제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경선 및 대의원 투표 등에서 비명 진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세가 결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명 주자들이 수도권 경선 및 대의원 투표 등에서 약체 주자를 밀어주는 분산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1위 자리를 놓고 경쟁대, 고진정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3·4·5위 후보들도 당선권 진입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밀어주기 형식의 투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송 후보 진영에서는 전국 대의원과 수도권 권리당원들에게 손편지 형식의 문자를 통해 균형있는 지도부 구성과 함께 호남 정치의 맥을 띄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째 올라 32.2%

###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5.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 의뢰로 지난 16~19일(8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주차 29.3%에서 2주차에는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소폭 반등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32.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올랐다.

부정평가는 8월 1주차 67.8%에서 67.2%, 65.8%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9%p ↑)과 60대(6.8%p ↑)에서 가장 큰 폭

으로 상승했고, 호남(3.3%p ↑)과 인천·경기(3.0%p ↑), 중도층(3.9%p ↑), 국민의힘 지지층(2.8%p ↑)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정의당 지지층(9.2%p ↑), 무당층(5.3%p ↑), 보수층(3.2%p ↑)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본격 회복세 여부는 1~2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 개선은 확인한 것"이라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에 진영 내 강한 결집력 보이며 회복 탄력성 에너지는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4.4%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37.6%를 기록,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